

[엠스쿨]사무엘상 16-31장

샬롬!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사무엘상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로 사울왕이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기보다는/ 귀를 닫고 자신을 높이려 했던 인간/ 사울왕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구절 기억나시나요?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웅장한 제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값지고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듣고 순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한 인물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장- 사울을 이어 왕이 될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을 폐위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이 기름부었던 사울로 인해 큰 슬픔에 잠겨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과제를 주십니다. 새로 기름부을 준비를 하여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보며 사울을 바라봤을 때처럼 외모가 준수한 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을 보았을 때 사울 못지 않게 키도 크고, 잘생겨서 딱 왕이 될 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짐해놓은 사람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기름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삼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아직 왕으로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병을 고치지 못해요. 신기하게 그 당시에도 음악치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합니다. 한글성경에는 수금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 '킨노르'라는 악기입니다. 9개 또는 10개의 낙타창자줄로 되어 있어 마치 기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소년은 사울 왕에게 다윗을 추천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은 다윗을 궁궐로 초대합니다. 다윗은 가족들한테 열외로 취급받고 양이나 치던 자였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자였죠. 하지만 그 다윗이 궁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되리라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현실로 나타내셨습니다. 다윗은 가장 총애받는 지위인 '무기를 든 자'로 사울 곁에 머물게 됩니다. 이 모든 치밀한 계획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 속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17장>

다윗은 들에서 양떼를 치며 고독한 밤을 보내기 위해 악기를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잘 탈 줄 알았죠. 다윗은 좋은 음악가이자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수금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다윗은 사울의 부름을 받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수업이 바로 악한 왕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한 미션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했습니다. 수금을 연주하여 사울 안에 있던 어둠을 내쫓아 회복시키는 사역으로 왕의 일을 시작한 것이죠.

시간이 흐르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치려 진을 칩니다. 고대시대에는 각 진영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1:1의 싸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진쪽이

이긴쪽의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1:1의 싸움을 제안하고 골리앗을 대표로 세웁니다. 골리앗은 가드 출신이었는데요, 이 가드는 여호수아 시대 때 다 진멸하라 했지만 남겨둔 곳이었습니다. 그로인하여 지금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것이죠. 골리앗은 엄청난 힘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이에 그 앞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전쟁터에 뜯금없이 소년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군대 경험도 없고 제대로된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심부름하며 양치기던 자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에게 전쟁터는 처음 맞닥뜨리는 생소한 장소였죠. 하지만 비전문가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풀어가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힘이 얼마나 쎈지,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는지의 싸움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17장 26절 하반절 말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힘에 대해 군사력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는 것이죠. 다윗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나 형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문성과 비전문성이라는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전쟁의 전문가인 골리앗과 싸워이길 수 있느냐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앙의 용기이고 도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 했던 것이죠. 들판에서 맹수들과 싸우며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한 다윗은 눈에 보이는 큰 산, 골리앗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 물맷돌 하나로 적국의 큰 산을 넘어뜨립니다.

<18장>

이러한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심지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줍니다. 이는 전시에 항복할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모두 넘긴다는 의미였죠. 또한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특별나거나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무엘서는 단순히 한 나라의 몰락과 승리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사울 왕국의 몰락과 다윗의 집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을 드러내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구조적인 시각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다윗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이러한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19장 - 계속되는 위기 속 하나님의 손길>

성경에는 크고 작은 위기의 장면이 나오는데 특히 사무엘상 19장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사울은 아주 공개적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첫번째로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합니다. 이에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하면서 사울을 설득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내가 다윗의 목숨을 찾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을하고 나서 사울은 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계략과 계획, 결심까지도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요나단의 변호로 다윗은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앓아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이 느닷없이 단창을 던집니다. 다행히 다윗은 피하게 되는데 단창이 벽에 박혔습니다. 살벌한 현장이죠. 다윗의 목숨을 찾지 않겠다던 사울의 맹세는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명성을 얻게된 다윗을 향한 질투가 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한 것도, 자기 딸과 다윗을 결혼시키려 했던 것도, 그를 장군 삼아 전쟁터에서 선봉으로 내보낸 것도 다 다윗이 죽길 바라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해당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건 후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미갈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고, 사울의 두 번째 딸입니다. 사울은 부하들을 미갈의 집 근처에 매복시켜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잡고 있는 상황인가요? 장인어른이 사위를 잡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고난 한복판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행히 미갈의 지혜로 창문을 통해 탈출합니다. 미갈은 다윗이 피할 시간을 벌기 위해 침대에 우상을 놓고 다윗이 아파 누운 것처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 그중에서도 궁궐 안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은 다윗의 아내의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치고 도망쳐 라마 나룻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여기서 라마는 지명이구요 나룻은 만나교회로 말하자면 한 동산을 말합니다. 나룻은 선지자 학생들이 모여 살면서 훈련 받던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주로 거주했는데 다윗이 이곳으로 찾아간 것이죠. 다윗은 사무엘에게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다 쓸어놓고 함께 살게 되요. 그런데 누가 이 사실을 사울에게 일러바칩니다. 그러자 사울은 곧바로 부하들을 보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하들을 세번에 걸쳐 보냈는데요. 보낼 때마다 성령께 감동이 되어 예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을 향한 위협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 것이죠. 이제 안되겠다 싶은지 사울이 직접 다윗이 있는 라마나룻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사울도 성령께 감동이 되어 예언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하루동안 벗은 몸으로 누워있었습니다. 이는 왕의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벌거 벗었다는 것은 수치를 뜻합니다. 하루동안 왕복을 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20장>

다윗은 라마 나룻에서 도망쳐 요나단에게 찾아가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아버지 사울왕이 그러냐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찾아가면 어떤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이 말을 듣고 차분하게 행동합니다. 자신이 입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줍니다. 이 띠에는 항상 전대가 달려있는데 이 전대는 돈을 넣는 주머니입니다. 돈까지 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 가지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신발입니다. 무장하라고 군복과 칼과 활을 주고 띠를 풀어줬으면 반드시 신발까지 줘야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장의 마무리가 신발이었습니다. 신발은 신분과 삶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은 다 주는데 신발은 안벗어줍니다.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지만 요나단은 마지막에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사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발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요나단이 다윗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거에요.

이때 다윗은 요나단에게 재밌는 제안을 합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데 온가족이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될 것이나 나로 하여금 3일동안 들에서 숨게하고 아버지 사울의 반응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이 바뀔 때마다 첫 3일동안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왕이 식구들이나 중요한 사람과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기간이기도해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니 당연히 그 식탁에 앉겠죠. 그런데 그 식탁에 앉았다가는 어디서 창자루가 날아올지 모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3일동안 숨어있을테네 사울이 자신을 찾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었죠. 요나단은 다윗과 재밌는 약속을 합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하면 화살을 다윗이 숨어있는 바위 훨씬 너무로 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화가 났다는 의미인줄 알고 도망하라는 것이었죠. 새 달이 되어 식탁의 자리에서 사울은 다윗을 찾게 되고 요나단은 여전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 한 약속대로 화살을 다윗이 있는 바위보다 멀리 쏘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뜨거운 작별인사를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21장>

다윗은 이제 놈으로 갑니다. 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떨며 영접합니다. 왜 떨었을까요? 다윗은 왕이 사력을 다해 찾고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집에 혼자 있는데 지명수배범이 불쑥 들어와 도움을 요청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겁이 나겠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혼자 여기까지 왔느냐? 함께 온자가 없느냐? 이에 다윗은 두려움에 훑싸여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울왕의 은밀한 명령을 받고 급히 혼자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냐면서 음식을 요구했습니다.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인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원래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이는 떡인데 다윗이 먹고 허기를 채우게 되요. 다윗은 배가 불러오니 이제 자신을 보호할 무기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뜻밖의 물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뺍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 죽입니다. 그 칼이 지금 다윗이 있는 성소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무기가 없다고 생각하며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하죠.

다윗은 무기까지 얻었는데도 무서웠는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사실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바로 적국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정신이 어떻게 된듯해 보입니다. 그곳에서 있던 신하들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나이까?' 지금 다윗이 왕인가요? 아닙니다. 기름부음을 받긴 했지만 아직 사울 왕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다윗을 이미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두려워합니다. 이제 죽게 될 것 같았거든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아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며 행동을 바꿉니다. 바로 미친척을 한 것이죠. 대문짝에 손가락으로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립니다. 이것을 보고 가드왕 아기스는 미친 사람을 데려왔느냐면서 다윗을 쫓아냅니다. 하마터면 다윗은 적국 왕에게 죽을 뻔 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회상하며 시편 34편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다윗이 단지 생각만으로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온 몸으로 쓴 것입니다. 사울을 피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찾다가 적국에서 미치광이 노릇을 한 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이러할 때 진정한 피난처되시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보다듬어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2장- 위기 속에 그일라를 구원하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난처입니다. 굴은 은신처이자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왕들이 굴로 도망가 은신처를 삼을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하나의 의미는 매장지였습니다. 우리나라 땅을 파서 시신을 안장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에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갔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에는 매장지로 삼는 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큰 굴과 작은 굴이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큰 굴에 시신을 둡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빠만 남을 때쯤 작은 굴로 옮겨서 보관합니다. 그 작은 굴은 조상들의 뼈가 쌓여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조에게 돌아갔고"라고 표현했습니다. 백골이 된 뼈를 조상들의 뼈와 합친다는 의미죠.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이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전해지게 되고 모두 이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척박한 광야에 가족들이 온 이유는 분명 그들이 살고 있던 집에서 평안히 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는 판에 아버지와 형제들의 집을 가만히 내버려 둘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가족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다 이 굴로 모여 400여명의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울의 왕국과 사회에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거절된 사람들이었죠.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 단창을 들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항상 옆에 창이 있었습니다. 창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사울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 하였죠. 하지만 다윗은 원수를 갚을 능력도 무기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기 전에 어디에 들렸었죠? 놈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는 사람이 커튼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울에게 일러바쳤습니다. 사울은 화가나 제사장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도액을 시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놈의 성 사람들과 가축들을 모두 칼로 칩니다.

그 사이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가까스로 도망쳐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은 그를 맞이하며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아비아달을 보호해주겠다 약속합니다. 여기서 다윗과 사울 사이,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과 사울의 신하 도액의 사이에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법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였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의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떡을 내주었고, 도액은 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를 고발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생명인가요? 범인가요? 사실 법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렇기에 뭐가 더 중요한가요? 바로 생명입니다.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는 떡을 다윗에게 주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를 잘못된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잘 했던 일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생명이 아닌 법을 중시하셨다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에 속해있겠죠. 하지만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23장>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러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에 쳐들어와 타작마당을 탈취해갔습니다”하고 전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 왔으니 그일라 땅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누가 해야하는 일인가요? 바로 왕이 해야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운 목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왕이 아닌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찾아와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요청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울이 아닌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과 같이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찾으러 다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피난처되시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기도 두려운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의 군대를 치는게 가능하냐고 따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렇지! 지금 우리도 위험한데 어떻게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돋겠어. 그냥 여기 있자! 이렇게 하실건가요?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네 손에 넘겼으니 그일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600명의 군사와 함께 목숨을 걸고 그일라로 갑니다. 이전보다 200명이 더 늘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일라 백성을 구해내고 빼앗겼던 것들을 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로 왔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죠? 다윗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그일라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곳에 계속 머무르면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았거든요. 사울왕이 찾는 다윗이 자신의 마을에 있다는 자체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놈의 제사장들처럼 사울이 자신들을 죽일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다윗은 아비아달이 도망칠 때 가져온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하여 사울에게 넘겨주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막으시고 다윗이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이는 아직도 다윗에게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더 많이 해맴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영혼의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 배반을 당하고 쫓기게 만드십니다. 그리하여 십광야를 거쳐 마온, 그리고 엔게디 요새까지 피하게 됩니다.

<24장- 복수보다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다윗>

다윗이 피신한 엔게디는 사해 근처에 있습니다. 주변에 절벽이 굉장히 많고, 절벽과 절벽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바위들이 있습니다. 또한 바위 틈새에 굴이 많이 있었습니다. 굴은 천연 굴과 인공 굴이 있었는데요, 인공 굴은 목동들이 피난처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굴입니다. 목동들이 양떼를 물고 집을 떠나 며칠씩 돌아다니는데, 굴이 없는 지역에서는 인공굴을 파놓고 추위를 피해 밤을 지냈습니다. 엔게디에는 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실수가 많아서 나그네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며칠씩 머물기도해요. 그래서 엔게디는 들염소 새끼의 산이라는 뜻인데 유다 광야 속 오아시스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병사 삼천명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볼일이 급했는지 사울은 혼자 어느 한 굴에 들어갑니다. 사울은 굴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시원하게 볼일을 봅니다. 그런데 그 굴에 누가 있었을까요? 깊은 어둠 속에서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다윗의 손아귀에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네 손에 넘기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날이 오늘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어서 사울을 죽이세요” 그러나 다윗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가만히 벗어놓은 옷자락만 살짝 벙니다. 다윗은 지긋지긋한 도피생활을 한 순간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죠.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부은 자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옷자락만 벤것이죠. 목적이 선해도 수단이 나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베다’라는 말은 할례, 즉, 남자의 표피 끝을 베는 의식에 사용하는 ‘베다’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상징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사울을 일을 다보고 굴 밖으로 나갑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울을 향해 “내 주 왕이여”라고 외치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코 왕을 해하지 않으려 함을 말하죠. 다윗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시고, 사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사울은 너무 창피하고 자괴감이 들어 다윗 앞에서 평평웁니다. 다윗을 원수로 여겨 쫓아다니던 사울의 입에서 이러한 선언이 나옵니다.

24:20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에게로 넘어갈 때 정당한 과정과 방식을 통해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죠.

<25장>

사무엘상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으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것은 사무엘의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집이 견고해질 때까지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24장 마지막에 사울이 다윗의 나라를 인정했던 것이죠.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바란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부자인 나발이었습니다. 양이 삼천, 염소가 천마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러한 나발이 양의 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털을 깎는 날에는 큰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떠도는 사람이나 거지도 와서 함께 다같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이나 나그네를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있던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소년 10명을

보내 양식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나발의 종들이 광야에서 양들을 돌볼 때 잘 대해주며 든든한 보호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나발은 당연히 양식을 공급해 줘야 했겠죠.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면서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 말합니다. 과연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대하여 다윗은 복수를 선언합니다. 무장된 사백명과 함께 나발을 치러 가죠.

나발의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찾아갑니다. 나발이 다윗을 모욕함으로 다윗이 우리를 치기로 결정했으니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죠. 아비가일은 큰 일이 났다 생각하며 나발에게 알리지 않고, 급히 음식을 나귀에게 실어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는 복수심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러한 다윗을 만나자 마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용서를 구합니다.

29절 말씀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절대 당신은 복수심으로 칼에 피를 묻혀서는 안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집을 세워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중재를 통하여 다윗 속에 있던 복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이제 아비가일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침 남편 나발은 마치 왕 같은 잔치를 벌여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되어서야 아비가일은 다윗과 있었던 일을 말하게 되요. 이 말을 들은 나발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낙담했다는 것은 마음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 하나님께 나발을 치셔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하신것이죠. 만약 다윗이 자신의 복수심에 못이겨 나발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손에 피를 묻히는 오점을 남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심으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셨습니다.

<26장>

26장은 엔게디 굴에서 사울과 다윗이 만났던 사건과 비슷합니다. 십 광야에 살던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었음을 알립니다. 사울은 다윗을 찾기위하여 삼천명과 함께 떠납니다. 분명 사울은 자기 옷자락이 베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라가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을 자기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울은 병력을 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못차리고 삼천명을 모아 다윗의 은신처로 출정합니다. 다윗도 이 소식을 듣고 믿기 힘들었습니다. 분명 사울이 이런일은 없을거라 했거든요. 다윗은 믿기지 않아 정탐꾼을 보내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향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세 가지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첫째, 사울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둘째는 사울을 경호해야 될 경호대장 아브넬이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대장이 잠을 자니 병사들도 함께 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죠. 마지막 셋째는 사울의 머리맡에 창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창을 보는 순간 어땠을까요? 과거의 무시무시했던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이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죽이기만 하면 다윗의 인생은 탄탄대로 였습니다. 함께 있던 아비새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다면서 창으로 찔러 죽게하겠다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것이죠. 사실 모르는 척하고 아비새가 사울이 죽이게 놔둘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부음 자이니 죽이지 말라하죠. 대신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기로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벽에 꽂으려 했던 창으로 잠든 사울을 단번에 죽일 수 있었던 기회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계속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순간 순간마다 물으세요. 너의 힘으로 할래? 아니면 내 힘으로 할래? 우리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말은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

맡겨놓고는 줄을 매달아 다시 자신에게 끌어오려고 하죠. 마치 낚시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줄도 끊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왕의 자리에 앉기 까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서 나와 경호대장 아브넬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리고 왜 왕을 보호하지 않는지 꾸짖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창과 물병을 보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은 다윗이 왔음을 알고 다윗을 보러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어찌하여 자신을 찾는지를 물어봅니다. 사울은 다시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과 사울은 자기들의 길로 걸어갑니다.

<27장- 또 다시 블레셋 땅으로 >

다윗은 생각보다 광야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점점 힘이 빠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고민하다가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전에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갔지만 미친 체 하며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쫓김이 너무 심하니깐 차라리 블레셋으로 가서 자신을 못찾게 하겠다 생각한 것이죠. 10년만에 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갔는데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기스 왕이 환영하고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은 다윗을 찾지 않게 됩니다. 다윗의 의도대로 훌러간 것이죠.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는 왜 다윗을 극진하게 대했을까요? 아기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이용하려고 했죠.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가족을 포함한 육백명의 무리와 함께 거주할 성읍을 달라 요청합니다. 아기스는 이를 받아 들였고 지방 성읍 시글락을 다윗에게 줍니다. 1년 4개월이 지난 후 다윗은 아말렉을 침공합니다.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전리품만 챙겨 아기스 왕에게 돌아갑니다. 아기스 왕이 이상해서 묻지만 다윗은 거짓말을 해요. 다윗은 유다의 원수인 아말렉을 쳤습니다. 이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게는 이로운 전쟁이었죠. 그래놓고 아기스에게 돌아와서는 유다를 쳤다고 거짓말을 하며 안심시킵니다. 아기스와 이스라엘은 원수 관계에 있으니 유다를 쳤다고 해야 다윗이 정치적으로 안전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아기스 왕이 속아 넘어갑니다. 이제 다윗이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나의 부하가 될 것이라 아기스는 생각했던 것이죠.

<28장>

그리고 아기스는 다윗에게 한 가지 일을 제안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았으니 함께 가서 이스라엘을 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되어 다스려야 할 나라와 싸우게 된 것이죠. 아기스는 다윗에게 자신의 머리를 지키는 경호병으로 세웁니다. 이는 다윗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여준다는 뜻이었습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본 사울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니 사울의 마음을 지배할 것은 오직 두려움 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울로 하여금 신접한 여인을 찾게 합니다. 한마디로 무당을 찾아간 것이죠. 이 신접한 여인은 엔돌이라는 지역에 있는데요. 이곳으로 가려면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지역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는 블레셋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신접한 여인에게도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왕복을 입고 있어야 할 사울이 변장하기 위하여 그 옷을 벗었다는 것은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다가왔음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죽은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서 밤에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죽은 사람을 불러올리는 주술 행위는 주로 밤에 했기 때문이죠. 사울은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말하자마자 바로 여인이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여인의 주술 행위와 상관없이 사무엘이 등장한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하신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사무엘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 소리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왜 자신을 속였느냐며 묻죠. 사울은 사무엘이 온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성가시게 하느냐!“ 이 말은 잠자는 자를 깨웠을 때 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성도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하죠. 사무엘은 잠자는듯 죽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려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사울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나라를 네 손에 떼어내어 다윗과 블레셋에게 넘기겠다는 것이었죠. 이 말씀을 들은 사울은 땅에 엎드려져 두려워하였습니다. 또한 기력이 다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말은 쭉 뻗었다는 말로 거듭 재앙을 확인하자 탈진해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29장>

이제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블레셋 편에 속하여 조국 이스라엘의 군대와 전쟁하기 위해 떠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인데, 조국의 군대와 전쟁을 하려 출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속해있는 블레셋은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다섯 개 부족이 모여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연방 제도죠. 다섯 방백이 다스리는데 그 중에 대표격이 가드왕 아기스였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려 하지만 나머지 넷의 방백들이 다윗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 배신을 한다면 우리 모두 죽게 된다 생각했던 것이죠. 아기스는 설득하려 하지만 먹히질 않는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동안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을 따라 나서자니 자칫하면 자신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고, 따라가지 않고 돌아가자니 의심을 받아 신변이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장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동족을 죽이지 않고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사울의 왕국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다보면 두 가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내가 정말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원치 않은 길로 걸어가게 만드세요. 둘째는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니 가로 막힐 때마다 답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죠. 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보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훗날 전체 그림을 보고 감사할 날이 오는 것이죠.

<30장-아말렉을 치다>

그렇게 다윗은 시글락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시글락 성에 온통 불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이 쳐들어와 부인과 아이들 할 것없이 전부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만약 전장에서 네 방백들이 반대하여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끝날뻔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과 백성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책임을 지도자에게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다급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하나님 여호와를 힘 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참 중요한 태도라 생각됩니다. 이때 백성의 마음을 사려고 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파하려 했다면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광야의 시간 가운데 배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애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애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그 옷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두림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것이죠. 당장에 아말렉을 쫓아가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장 8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다윗은 비통에 잠긴 병사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육백명이 함께 했는데 브솔 시냇가에서 200명이 도저히 못하겠다 소리칩니다. 지금 자녀들을 빼앗겼는데 힘들고 지쳐서 못가겠다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품어줍니다. 못가겠다고 한 200명을 브솔 시냇가에 머무르게 하고 나머지 400명은 계속해서 아말렉을 쫓았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들에서 다 죽게 된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소년에게 물과 떡을 먹이고 추슬러 정신을 들게해 물어보니 애굽 출신인데 아멜렉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가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사정을 다 들어보니 병이 들어 주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는 것이었죠. 지금 당장 아말렉에게 가야하는데 다윗은 그 소년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고 치료하여 살려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담담했겠죠. 그런데 이를 통하여 아말렉을 찾아내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소년을 따라 아말렉이 진친 곳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아말렉 군대가 승리에 취해 밤새 춤추고 노래하고 술마시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다윗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전쟁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하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은 새벽부터 다음날 저울때까지 아말렉을 칩니다. 자녀들과 양 땅과 소떼 할 것 없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00명이 머물고 있던 브솔 시내에 이르게 되죠. 그러자 다윗과 함께 싸우러갔던 자들 중 불량한 사람들이 브솔 시냇가에 머물렀던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자고 합니다. 사실 이들의 논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전리품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여기서 놀고 있었지 않았나요? 절대 안됩니다. 자녀들만 돌려줍시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에 다윗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30장 23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기서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명합니다. 다윗은 낙오되었던 이 백명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합니다. 이것이 장차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다윗의 왕국이었습니다.

<31장- 사울 왕의 몰락>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의 몰락을 이야기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고 잘 나타나지 않으시니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자 합니다. 그래서 허용적 형벌 차원에서 사울을 세워주십니다. 백성들은 사울이 자신들을 잘 보호해 줄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세 아들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사울에게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죽음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구했던 왕! 너희가 그렇게 신뢰했던 왕이 과연 너희를 지켰느냐? 그것이 정말 너희 눈에 신뢰할만 했더냐?”라고 백성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 자꾸 그것을 의지하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밑에서 저질렀던 우상숭배처럼 말이죠. 든든한 재정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른 무엇이 나를 지킬 것 같아 우리는 그것을 쫓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실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무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니?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붙잡으며 사십니까? 돈을 의지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을 통하여 왕을 의지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답은 인간적인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4주를 거쳐 배워왔던 이 진리를 기억하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를 위한 섭리를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